



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tel 02.3270.7344 fax 02.3270.7432 [발행일] 2016.8.1 문서번호 : 2016-2471

정부 국회 동향 등

◆ 안전공단, 「컨베이어 및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도입 간담회(2차)」 개최 (7월 29일)

- 안전보건공단은 ‘컨베이어 및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도입 간담회(2차)’를 개최함.
- 일시 및 장소 : 7.29(금) 10시/공단 서울북부지사 7층 회의실

<논의결과>

- 본회는 주변에 방책이 완벽히 둘러쌓여 근로자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무인로봇공정의 검사 대상 제외를 요구 하였으나 정부·공단에서 본회 입장 불수용
- 본회는 향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대책을 진행하여 검사대상·범위 합리화에 노력할 계획

◆ 홍영표의원, 「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대표발의 (7월 27일)

-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’을 대표발의함.

<개정안 주요내용>

- 가설기자재 사용가능 연한 규정
- 안전인증기준 심의회 구성 및 인증기준 제·개정 및 폐지 시 심의

◆ 홍영표의원, 「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대표발의 (7월 27일)

-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’을 대표발의함.

<개정안 주요내용>

- 평균임금 산정 기준 명확화
 - 전체 근로자 →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
-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배액징수 면제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축소
 - (기준) 원하지 않는 경우 → 대통령령으로 사유 한정
 - (사기) 적용제외 신청 다음 날 적용 → 공단 승인 후 적용
 - (재적용사기) 신청 후 다음 보험연도부터 → 신청일 다음 날

◆ 김삼화의원, 「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대표발의 (7월 28일)

-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’을 대표발의함.

<개정안 주요내용>

- 산재보험료징수기관(건강보험공단) 출연금 분담 기준 마련
- 사회보험별 징수업무(고지·수납·체납)에 비례

◆ 홍영표의원, 「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안」 대표발의 (7월 28일)

-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‘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안’을 대표발의함.

<개정안 주요내용>

- 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, 요양생활수당, 장의비,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 지급
- 가슴기살균제 피해조사·인정위원회 설치
-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 설치

<주요내용>

- 전국 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 300여 개소에 대해 안전 보건감독 실시(8-9월 2개월 간)
- 부산경남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(20여개소)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실태, 보호구 지급·착용 여부 집중 감독 실시(8.1~8.19)

◆ 노사정위, 「산업안전혁신위원회 제1차 워크숍」 개최 (7월 25일 ~ 26일)

- 노사정위원회는 '산업안전혁신위원회 제1차 워크숍'을 개최함.
 - 일시 및 장소 : 7.25(월)~26(화)/부산 일루아 호텔
 - 안전 : 산업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공익위원 의견 검토

◆ 근로복지공단, 「산재보상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」 운영 (8월 한 달간)

- 근로복지공단은 8월 한 달간 '산재보상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'을 운영함.

◆ 산업보건학회, 「2016 하계학술대회」 개최 예정 (8월 17일 ~ 19일)

- 한국산업보건학회는 '2016 하계학술대회'를 개최할 예정임.
 - 기간 및 장소 : 8.17(수)~19(금)/현대호텔 경주
 - 주요내용 : 주제(메탄올, 가슴기 살균제, 반도체와 건강 장애 등)별 강의 및 특강, 포스터 발표 등

<주요내용>

- (기간) 8.1 ~ 8.31
- (방법) 산재보험부정수급신고센터(052-704-7474)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및 인근 지사, 국민권익위원회 '복지·보조금 부정신고센터(국번없이 1398)' 로 신고
- (비밀보장) 부정수급 사실 신고 시 신고자 정보 비밀 보장
- (포상금) 부정수급 사실 확인 시 최고 3천만원까지 지급

노사 동향

◆ 정부, 「안전관계장관회의」 개최 (7월 27일)

- 정부는 '안전관계장관회의'를 개최함.
 - 일시 및 장소 : 7.27(수) 08시/정부서울청사 회의실

<주요내용>

- 도급사업주의 산재예방 조치의무 범위 확대(모든 장소), 처벌 수준 강화(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). 안전보건 정보제공 범위 확대(질식·붕괴 위험 작업 추가)
- 사업용 차량 운전자 4시간 연속 운전 후 30분 휴게시간 확보
- 화학사고 즉시신고 규정(사고시 15분내 신고) 3회 위반 사업장 영입허가 취소(삼진아웃제 도입)

◆ 경총, 「유해·위험작업 도급금지 및 사업주 처벌 강화」 대책활동 (계속)

- 본회는 '유해·위험작업 도급금지 및 사업주 처벌 강화'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활동을 진행 중임.
 - 주요내용 : 새누리당 장석춘의원실(7.29), 하태경의원실 (8.2 예정) 방문하여 경영계 입장 설명

언론 동향

◆ 고용부, 「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 불시감독」 실시 예정 (8월 1일)

- 고용노동부는 '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 불시감독'을 실시할 예정임.

◆ 황산누출 고려아연 작업중지 해제...1개월 만에 정상 가동 (연합뉴스, 8월 1일)

- 고용부 울산지청이 고려아연 공장 3곳에 대한 작업 중지명령을 모두 해제함.

- 고용부는 6월 28일 황산누출 사고가 발생한 고려아연 제2공장에 이어 제1·3공장도 잇따라 작업 중지시키고 안전진단 명령도 내린 바 있음.
- 고려아연은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필기와 실기시험을 실시하며 안전 테스트를 받은 후에 전 공장 정상가동이 가능하게 되었음.
- 고용부는 작업중지 해제와 별개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최고 책임자인 울산제련소장의 일부 혐의를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기로 함.

- 가스 배관·송유관, 공장설비 등은 각 업체나 공단에서 관리해야 하지만 인접 도로와 상·하수도 배관 등은 지자체 소관인데, 예산과 실태 파악이 가능한 전문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음.
- 전남의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"국가산단 세입 중 지자체가 가져가는 비중은 1%도 안 되어 노후 산단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"며 "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"고 말함.

◆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, "안전보건 분야도 AI 위협요인 대비해야" (서울경제신문, 7월 31일)

-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"인공지능(AI) 기술에 의한 위협요인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"고 주장함.
- 이영순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"유럽 등 선진국은 AI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게 달라진 트렌드"라며 선제적 대응을 강조함.
- 또한 이 이사장은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를 주장하며, "우리 기업도 법으로 규제하고 벌금을 매기는 것보다 선진국같이 브랜드 가치를 위해 안전보건에 신경써야 할 시대"라고 설명함.
- 다만 이영순 이사장은 "중소기업의 경우 벌금·과태료보다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면 원청과의 사업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 방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"고 역설함.

◆ '위험성평가 인정 1만호 사업장 탄생...'산업재해 예방·산재보험료 할인 등 일석이조 효과" (연합뉴스, 7월 28일)

-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하는 '위험성 평가' 제도가 시행된지 3년여만에 우수사업장 인정 1만호 사업장이 탄생함.
-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광주시 자동차 부품제조 업체인 중수산업을 위험성평가 1만호 우수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산재보험료 감면, 감독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고 28일 발표함.
- 중수산업은 금속부품 가공 공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개선하기위해 안전공단에서 10억원을 융자해 안전성이 확보된 프레스 9대와 산업용 로봇 8대 등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음.
-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"위험성평가가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및 정책 지원을 강화할 것"이라고 말함.

◆ 도로 꺼지고 가스배관 녹슬고...노후산단 안전 '빨간불' (연합뉴스, 7월 31일)

- 산단시설 노후화로 인한 사고와 문제가 해마다 드러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"일단 산단이 조성된 이후에는 정비를 위한 별도 예산 편성이 쉽지 않다"며 안전보강에 난색을 표하고 있음.
-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우리나라 41개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84건으로, 이 중 80%에 달하는 140건이 노후 산단(28개)에서 발생함.

<끝>.